

광복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다과회

- 인사말 -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슨 일을 맡으면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은 일도 많은 텐데 감사합니다. 해방되던 해 출생한 사람은 올해가 회갑입니다. 역사학계에서 광복이 회갑을 맞는데 기념 사업할 것을 정리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총리실과 의논을 해서 총리실에서 주관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사업추진을 위해 대통령 훈령을 총리실에서 제정해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해방으로 보면 회갑이지만 100년을 보면 1905년 을사조약과 맞물리는 해입니다. 하고자 하는 것은 근현대사를 다시 조명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고 거기에 걸 맞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위원 47분이고 정부위원 11분입니다. 그래서 60분입니다. 60년이라 그렇게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총리와 강만길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3개분과위로 나눠서 진실과 화해, 평화와 희망, 미래와 세계 이렇게 나눴는데 잘 구성됐다는 느낌입니다. 오늘 새로운 사업에 뜻을 올립니다. 바람 배는 뜻을 올려야 하지만 요즘은 많지가 않고 닳을 올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저로서는 약간 흥분할 만큼 의미가 와 닿습니다. 긴장되고 흥분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성과를 내주십시오. 그동안 정리되지 못한 많은 문제를 정리되고 계기가 되고 이정표를 세웠으면 합니다.